

루터와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한 비교 고찰: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이윤규
(함께하는 교회)

[초록]

본 논문은 루터와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을 통하여 선재성 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그의 신학 속에서 경륜적 삼위일체 사상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재적 삼위일체론도 부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만약 경륜적 삼위일체만을 말하게 된다면 양태론(modal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반대로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 없이 내재적 삼위일체만을 논하게 되면 사변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루터는 경륜적으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를 말하고 이를 토대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루터는 양태론과 사변적 신학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의 신학으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수용하고 비판하면서 전개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고통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몰트만의 만유재신론적 종말론은 결국 그리스도의 후재설의 입장임을 드러냈다. 다른 한편 몰트만은 십자가 신학 가운데 신정론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성경적 관점 가운데 구원의 개인적 측면을 간과했다. 결론적으로 루터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양자론(adoptionism)에 빠질 수 위험성을 배제시킨다. 이런 점에서, 루터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기독교를 인간 성취의 종교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아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방향 설정과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키워드: 그리스도의 선재성, 십자가에 못박히신 하나님, 양자론, 내재적 삼위일체, 만유재신론, 구원론

1. 서론

그리스도의 선재(preexistence)는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인류의 구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개념이다.¹ 그리스도의 선재는 인성(humanitas)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persona)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재는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² 이런 점에서 초대 교회들은 예배시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였다. 여러 공의회에서 채택한 신조들에도 그리스도의 선재는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³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자들은 볼트만(Rudolf Bultmann)의 약점을 보완하여 역사적 예수와 선포의 그리스도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들도 또 다른 실존적으로 채색된 예수를 나타낼 뿐이었다.⁴ 현대 신학에서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상의 사람 예수의 신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대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신화적이라고 주장하거나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재설이 교의학에서 불필요함을 역설하는 이도 있다.⁵ 그 뿐만 아니라 철학적 이데아에 불과하다거나(John Macquarrie), 아담 기독교론을 저해한다거나(James D. G. Dunn), 위기에 처한 신앙의 공동체에 의해서 고안된 것이라고(Karl-Josef Kuschel) 주장한다.⁶ 이러한 선재성 교리에 대한 현대적 재고들도 성경적 해석이기 보다

1 H. R. Mackintosh,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Edinburgh: T. & T. Clark, 1913), 456-62.

2 마 16:16; 20:28; 요 1:1; 8:58; 빌 2:6-8; 골 1:16-17.

3 Fred Craddock,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185.

4 Charles C. Anderson, *The Historical Jesus: A Continuing Que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112.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구에 대해서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볼트만과 그의 제자들은 역사적 전망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 그들은 역사의 문제를 피한 것에 불과하다.”

5 Reginald H. Fuller, “Pre-Existence Christology: Can We Dispense With It?” *Word & World* 2 (Alexandria: Virginia Theological Seminary, 1982): 29-30.

는 계몽주의적 회의주의의 산물이다.⁷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다른 신학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필자는 칼빈(John Calvin)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해서 이미 고찰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치중하므로 양자론(adoptionism)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시켰다.⁸ 이제 종교개혁가 중의 한 사람인 루터(Martin Luther)와 현대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루터와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펼친 십자가의 신학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여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십자가 신학과 그리스도의 선재성

1. 루터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

(1)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루터는 말씀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 그는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위격적 연합’은 선재하신 로고스(a preexistent Logos)가 육과 연합되어 존재함을 의미한다.⁹ 루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그는 참 하나님이며 하늘에서 영원

6 문병호, 『기독교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594에서 재인용하였음.

7 이용규,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18호 (2013 봄여름호), 173-79.

8 Cf. 이용규, “칼빈의 그리스도 선재성 이해에 대한 고찰”, 『갱신과 부흥』 제 17권(2016), 35-51. 칼빈의 그리스도 선재성 이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을 참조하시오.

9 Vidar L. Haanes, “Christological Themes in Luther's Theology,” *Studia Theologica* 61(2007), 21-22.

한 성자의 선재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를 전제한다. 루터는 사도신경의 제 2 항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¹⁰

루터의 신학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십자가 신학’이다.¹¹ 그가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교의학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신학을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루터는 중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규정하였다.¹² 영광의 신학자는 롬1:20의 말씀대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사람들이며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의 중세신학을 말한다.¹³ 그러므로 영광의 신학자는 바로 인간의 업적을 중시하는 중세의 스콜라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인간의 성취, 인간의 제도, 그리고 인간의 신학을 선하다고 본다.¹⁴

루터의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감추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¹⁵ 영광의 신학자는 약을 선이라고 부른다.¹⁶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참된 자리는 십자가이다. 루터가 본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처형의 고통과 치욕 아래서 드러난다.¹⁷ 그의 ‘감추어진 하나님’ 개념이

10 Bernhard Lohse, *Martin Luther's Theology: Its Histor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trans. Roy A. Harrisvil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221.

“나는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며,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11 Luther, Martin.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ed. Jaroslav Pelikan and Helmut Lehmann. 55 vols.: Philadelphia and St. Louis: Fortress Press and Concordia Pub. House, 1955ff. 이후 *LW*로 약칭함. *LW* 31, 40.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과 대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광의 신학자는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실상 진리인 것을 말한다.”

12 *LW* 31, 53; Cf. 차재승,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253: “라틴어로서는 신학이 아니라 신학자인데, 영어 번역에는 영광의 신학 (a theology of glory)라고 번역되었다.”

13 *LW* 31, 52.

14 *LW* 31, 41; *LW* 26, 399.

15 *LW* 31, 225.

16 *LW* 31, 40; 차재승,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 253-4.

17 *LW* 31, 53.

십자가 신학을 통해 해석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¹⁸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고 발견한다.¹⁹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고 발견한다. 이으로써 그의 기독교론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과 같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가진다.²⁰ 루터는 성부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밖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확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른다.²¹

그러므로 루터의 관심은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 예수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역설적으로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다.²² 십자가 신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들을 루터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Deus absconditus)이다. 그러나 동시에 숨겨짐 안에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이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학에서는 숨겨진 하나님은 곧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하다.²³ 십자가에서 드러난 고난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자는 드러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영광의 신학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진다. 여기서 십자가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과 대조된다. 루터는 십자가의 수난과 고난에 근거하여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고

18 LW 31, 52.

19 LW 31, 53.

20 LW 24, 61.

21 Ian D. Kingston Siggins, *Martin Luther's Doctrine of Chri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222.

22 LW 31, 52

23 Alister E. McGrath, *Theology of the Cross :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New York : Basil Blackwell, 1985), 161-75.

본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루터는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했다.²⁴

(2) 속성 교류

루터의 신학에서 속성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는 십자가 신학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의 십자가 사상 전반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은 펼쳐진다. 그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의 연합을 세우기 위해서 속성교류를 말한다.²⁵ 루터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짊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을 우리와 교환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였다.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의 발견은 십자가 신학 전개의 촉매로 볼 수 있다.²⁶ 그에게 있어서 속성의 교류는 십자가 신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신학적 방식이다.²⁷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인간과 나누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진 참 구세주이심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강조점을 두었다.²⁸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동기에 대해 주장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더 우위를 둔다.²⁹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루터가 보인 이런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4 LW 31, 52.

25 LW 22, 361.

26 LW 17, 224-5.

27 LW 22, 261.

28 LW 22, 23.

29 Hugh T. Kerr (ed.), 『루터신학 개요』, 김영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102: 루터는 낚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물에 던져 넣으면 공기가 와서 미끼를 채가고 그의 목은 바늘에 걸린다. 그러면 낚시꾼은 물에서 고기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사단을 다루셨다. 하나님은 낚시 바늘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미끼로 삼아 바늘에 걸었다. 그러자 마귀가 와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물었고 그를 삼켰다. 그러다가 그는 쇠로 된 낚시 바늘까지 물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sapientia divina)인 것이다.”

하고 루터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언급한다.³⁰

루터는 속성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양성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인격 안에서의 양성의 결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 기초한 십자가 신학의 이러한 측면을 발전시키고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의 연합을 세우기 위해서 속성 교류를 받아들인다.³¹ 다시 말해서, 루터는 두 본성의 인격에 대해 전통적 교리를 채택하면서 두 본성간의 상호 관계를 속성의 교류로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속성의 교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유기적 결합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³² 속성교류의 측면에서 편재교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범신론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루터의 편재 교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기도 하다. 그의 속성의 교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것의 속성들을 인성에 전달하며 인성도 그것의 특성을 신성에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루터는 구유에 있는 무력한 아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³³

루터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육신과 그것의 인성과의 인격적 일치 때문에 그것의 고난의 최상의 깊이로 들어간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신다. 그러나 그는 양태론자들(modalists)이 한 것처럼 ‘성부 수난설’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간주했다.³⁴ 그는 성찬에서도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와 속성 교류를 사용한다.³⁵ 사람의 이성으로는 빵이 육체라고 말하여

³⁰ Haanes, “Christological Themes in Luther’s Theology”, 37-39.

³¹ Ibid., 31. Haanes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에 대한 루터의 강조는 알렉산드리아학파의 기독론에 가깝다고 언급한다.

³² Ibid., 27.

³³ Ibid., 37.

³⁴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C. Schultz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197.

³⁵ LW 35, 63-86. 루터는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의 본질(substance)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성만찬관이 속성 교류를 요구했

지는 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루터가 속성 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보려는 것이지 형이상학적 사색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의 저작은 칼케돈 정통에 대한 공식적 인정으로 가득 차 있다.³⁶ 루터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진술을 그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아기 예수조차도 전지하고 전능하며 편재하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루터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안에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 그가 그의 신성을 혹은 하늘에서의 그의 신성의 특성들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³⁷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위격적 성품과 정체성을 가진 신적 위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상 선재하심 없이는 성육신 사상은 불가능하다. 성육신의 주체는 선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재는 결코 어떤 사변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결합시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루터의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무엇보다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재하신 말씀으로서 성육신하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³⁸

2.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

(1) 루터의 십자가 이해에 대한 수용과 비판

기독교 신학의 근거와 규범이 되는 ‘십자가 신학’이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있어서 신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트만에게도 십자가

다.

36 Bernhard Lohse, *Martin Luther's Theology: Its Historical and Systematic Development*. trans. Roy A. Harrisvil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10.

37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222.

38 Haanes, “Christological Themes in Luther’s Theology”, 39-41.

신학은 그의 신학적 사고의 중심이었다. 몰트만은 1972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Der gekreuzigte Gott*)을 내 놓았다. 이 책은 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몰트만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빛에서 그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에게 인간과 그 세계 속의 고난의 문제와 관련한 신정론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³⁹ 몰트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는 “삼위일체론의 내용적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 인식의 형식적 원리는 삼위일체론이다”라고 한다.⁴⁰ 몰트만은 예수의 인격과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이해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였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의 사건 즉 삼위일체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⁴¹

몰트만에 의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 하에 있는 신학은 ‘하나님의 수난 불가능성’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⁴² 그러면서 그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중세의 무감각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저항하였고 밝힌다. 그는 중세의 교회적 사회가 지녔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해방시키는 복음에 대한 종교 개혁적 인식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였다.⁴³ 몰트만은 초대교회 당시 신학적 사고는 하나님 자신을 예수의 고난 및 죽음과 동일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 기독교는 ‘가현설’의 경향으로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이 가현설에 의하면 예수는 정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⁴⁴

39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180.

40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253.

41 Ibid., 253-4.

42 Jürgen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 기독교 교사회, 1993), 34.

43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82-85.

44 Ibid., 329-30.

몰트만은 루터가 양성론의 구분을 통해 인간이 그 자신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분쇄하였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적 인격에 돌리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한다.⁴⁵ 그러나 몰트만은 루터가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언제나 철저히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⁴⁶ 그러므로 그는 전통적인 양성론에 관한 언급과 더불어 삼위일체론적 십자가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양성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버리고 아들은 버림을 당하는 분리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⁴⁷ 그러나 이 분리의 사건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결합의 사건이라고 몰트만은 말한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수동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능동적인 버림심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지의 일치성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다.⁴⁸

몰트만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너무나 실존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고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업적의 의와의 논쟁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결과 하나님의 칭의의 우주적 지평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⁴⁹ 이와 같이 몰트만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한다. 또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종말론적 우주론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45 Ibid., 349.

46 Ibid., 335.

47 Jürgen Moltmann, *Politische Theologie*, 『정치신학』,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59.

48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56-7.

49 Jürgen Moltmann, *Following Jesus Christ in the World Today: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and Christian Discipleship* (Elkhart, Indiana: Institute of Mennonite Studies, 1983), 38.

(2)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건

몰트만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명제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 다’(CRUX Probat Omnia)를 수용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를 삼위일체론적 십자가 사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후기 저서들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⁵¹ 그러므로 몰트만의 십자가의 신학이 삼위일체론이며, 삼위일체론은 십자가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² 그에게 십자가는 삼위일체론의 근거이며 삼위일체론의 내용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은 삼위일체론이다.⁵³

몰트만은 이 세상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없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역시 포함될 수 없는 냉정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제거하고 있다. 여기서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육신과 인간성과의 인격적 연합 때문에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신다”라고 주장하는 루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삼위일체적 사건이라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서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사이에 이분법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⁴ 만일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구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단지 밖을 향한 구원의 사역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수난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난이라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몰트만

50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14-19.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사회 윤리적 요소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한다. 십자가 신학의 한계와 약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십자가 신학을 다시 해석한다.

51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Jürgen Moltmann* (Edinburgh: T&T Clark, 1994), 5-6.

52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53-4.

53 Moltmann, 『정치신학』, 60.

54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58.

은 십자가의 사건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⁵⁵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세 신적 위격은 서로 삼위일체로서의 관계를 구성한다고 말한다.⁵⁶ 삼위일체가 실제로 구성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라고 말하려는 듯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몰트만은 이내 그러한 입장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라는 견해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경험 안에 내재적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몰트만은 삼위일체 신학을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몰트만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단서를 덧붙인다.⁵⁷ 그는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은 성령을 통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의 내적 삶을 결정한다.⁵⁸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고난의 일상적인 실재에 좀 더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있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적인 초월성에 대해서나 그리스도께서 죄악과 죽음을 이기신 것에 대한 강조점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과연 삼위일체론의 근거이며 십자가는 삼위일체론의 증거라고 파악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성은 십자가 사건 이전

55 Ibid., 258-59.

56 Jü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Kaiser, 1972), 232;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trans. R. A. Wilson and John Bowden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245;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56.

57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82-3.

58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177-8.

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⁵⁹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것이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주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종말론적 만유재신론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는 정통적인 개념과 다르다. 이런 점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그의 만유재신론적 사고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64년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을 출판함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⁶⁰ 미래성에 기초한 몰트만의 초월과 내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그의 신론에서 결정적인 것이다. 또한 그는 오늘의 세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포괄적인 지평을 이해하고자 한다. 종말론적 사상가들은 초월자로서의 하나님 탐구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공간성보다는 시간성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래의 힘’ 또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확립하려 했다.⁶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는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해갈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몰트만이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미래의 현존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신론은 종말론적이며, 삼위일체적인 만유재신론의 성격을 갖는다.⁶² 몰트

59 Klaas Runia, *The Present-day Christological debate*, 『현대기독교론 연구』, 김호남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65-66.

60 Jürgen Moltmann, *Theologie der Hoffnung: Untersuchungen zur Begründung und zu den Konsequenzen einer christlichen Eschatologie*, München: Kaiser, 1964.

61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71-2.

만의 신론을 고전적 신론이나 과정 신학과 구분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self-limitation)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유대교의 침춤(zimzum)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은 무한(infinite)하시고 무소부재(omnipresent)하므로 하나님에게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침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앞서 자기 제한을 통해서 무로부터의 창조 행위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무(nihil)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⁶³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현실은 비록 하나님과는 구분되지만 또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된다.⁶⁴ 여기에서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상호적 관계가 전제된다. 비록 이 세계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더 크지만, 하나님은 그의 내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⁶⁵

몰트만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무한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미리 어떤 유한함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두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⁶⁶ 몰트만은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의 연관성 속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게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⁶⁷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리와 일치라는 변증법을 통하여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구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⁶⁸ 몰트만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고 희생시키는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의 영, 곧 성령 가운데서 아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죽음과 고통을

62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33. 몰트만은 자신이 만유재신론자임을 밝힌다. “만유재신론적 사고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는 그들의 관계와 상호 작용에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63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섭리 이해,” 『고신신학』15호 (2013), 273.

64 Ibid., 274.

65 Jü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Margaret Kohl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5), 82.

66 Ibid., 86.

67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47-8.

68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76-8.

당한다. 그는 성령을 통해 세계의 변화는 곧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가 있게 된다고 말한다.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죄를 인하여 당해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아들과 함께 당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세계의 창조자로서 사랑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무감정의 신도 아니다. 몰트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으로부터 세계와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는 종말론적인 삼위일체적 만유재신론의 범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인격들 사이에서 구원을 위한 역사적 관계성의 상호관계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⁶⁹

III.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사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에 관한 교리는 삼위일체론과 기독교론이 정립되는 논쟁 과정에서 신조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재는 삼위일체론으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⁷⁰ 내재적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적 구원 경륜 가운데 계시하셨다.⁷¹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륜적 삼위일체만을 말하게 된다면 양태론(modal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와 반대로 경륜적 삼위일체와 관련없이 내재적 삼위일체만을 논하게 되면 사변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⁷² 그러므로 루터와 몰트만의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살피는 것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선재

69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79.

70 이용규 ·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173-9.

71 김영선,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 판넨베르크의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의 관계성』(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177-83.

72 Herman J. Selderhuis(ed.),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491-501; ; Cf. 이용규, “칼빈의 그리스도 선재성 이해에 대한 고찰”, 46.

성 이해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중요하다.

루터는 1520년부터 비로소 내재적 삼위일체 연관의 신 구원 계시를 향한 소급적 방향 정위를 반성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루터는 다음의 주장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상징들 속에서도 영원한 신 자체에서 착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 인식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며 여기에 있어서 성경 자체를 통해 지시된 길에 머물게 된다.⁷³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아래로부터 위로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현대 신학이 주장하는 ‘아래로부터’ 기독교론 방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⁷⁴ 루터는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계시의 빛 속에서 신의 내재적 삼위일체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⁷⁵ 그는 성자가 인간이 되었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죄를 담당하신다는 교리를 전제한다. 루터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 교리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성경에 의해, 즉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⁷⁶ 루터는 전통적 삼위일체론을 따른다. 그에게 삼위와 일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 가운데 있다. 그는 어거스틴(Augustinus)의 전통에 확고히 서 있으면서도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한다. 또한 루터의 삼위일체 교리는 확실히 실천적이고 구원론적이다.⁷⁷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적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루터는 삼위 신론을 제시한다. 그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자연의 유비에서 흔적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

73 Kerr (ed.), 『루터신학 개요』, 400: “루터의 전기 주석과 설교에 있어서는 사변적 전통의 여지가 발견된다. 그런데도 이것은 탈피된다.”

74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213.

75 LW 50, 273: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빛 속에 거하며, 그가 우리에게로 오셔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초롱빛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76 Kerr (ed.), 『루터신학 개요』, 400-4.

77 Ibid., 68-69.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⁸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루터가 내재적 삼위일체 교리를 내적으로 유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재적 삼위일체에 있어서도 세 위격이 구별되게 드러난다. 물론 그는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 Trinity) 국면들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대신 경륜적 삼위일체(economic Trinity) 국면들만을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⁷⁹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론과 관련하여 루터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몰트만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고 말한다.⁸⁰ 그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개념을 전개했다. 그는 십자가의 신학은 인식 근거 이상의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몰트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다르다.⁸¹

몰트만의 신학에서 경륜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형성 관계에 결정적이다. 그는 내재적 삼위일체로부터 그 다음 경륜적 삼위일체로 나아가는 삼위일체 교리의 접근을 거절한다.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경륜적 삼위일체의 소급적 효과(retroactive effect)가 몰트만의 특징적 주장이다.⁸² 그에게 십자가 사건은 경륜적 삼위일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내재적 삼위일체의 사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78 Ibid., 403.

79 Siggins, *Martin Luther's Doctrine of Christ*, 49-52.

80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80.

81 Runia, 『현대기독교론 연구』, 62.

82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193.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단지 종말에서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의 십자가의 신학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경륜적 삼위일체에 의해서 내재적 삼위일체가 풍성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경륜적 삼위일체가 역사의 과정에서 다 드러날 때에 참으로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게 된다.⁸³ 이런 점에서 몰트만의 신학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궁극적으로 구속사가 완료되어 완성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다.⁸⁴ 즉 몰트만의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인 과정을 의미한다.⁸⁵ 그러므로 몰트만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는 종말론적 선재성 곧 후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신학과 현대의 신학자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 두 신학자가 전개한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해에 대해서 고찰했다. 몰트만은 그의 십자가의 신학으로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수용하고 비판하면서 전개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고통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몰트만은 삼위일체론과 종말론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종말론적 만유재신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만유재신론적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선재설이 아니라

83 김영선,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 판넨베르크의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의 관계성』, 185-91.

84 Grenz & Olson, *20th Century Theology*, 183.

85 Moltmann,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267.

후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를 테면, 그의 십자가의 신학은 경륜적 삼위일체가 역사의 과정에서 다 드러날 때에 참으로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몰트만은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신정론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내재적 삼위일체는 궁극적으로 구속사가 완료되어 완성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루터의 신학에서 구원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선재성은 언제나 그 중심에 놓여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계시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숨어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륜적으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를 말하고 이를 토대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루터의 그리스도의 선재성 교리는 양태론과 사변에 빠지지 않으면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루터의 신학에 잠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방향 설정과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Abstract]**A Comparative Reflection on Luther and Moltmann'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with Emphasis on the Theology of the Cross**

Yong Kyu Lee (together church)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doctrine of preexistence by exploring Luther and Moltmann's theology of the cross. Christ's preexistenc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oteriology. Indeed, hi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is salvational.

Luther has also discussed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relationship of the Trinitarian God.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Trinity appears definitely in his theology. And the immanent Trinity is also expressed without denying. If only the economic Trinity is said without the immanent Trinity, there is a risk of falling into modalism. And the converse is also true. If only the immanent Trinity is expressed without the economic Trinity, it is easy to fall into speculative theology. But in regard to this problem, Luther said the Trinity revealed through Scripture and then he speaks the immanent Trinity on base of it. Therefore, without falling into modalism and speculative theology, he affirmed the preexistence of Christ.

On the other hand, Moltmann dealt with the problem of the theodicy with his theology of the cross and developed it

by accepting and criticizing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He argued that the events of the cross were not merely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but were events that occurred in the trinity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e one who is crucified is God Himself, and therefore those who are suffering in history are in the suffering of God and speak of the infinite grace and love of God on the cross of Christ. However, Moltmann insisted on the eschatological, trinitarian pantheism because he understood the cross of Jesus Christ 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riune God and eschatology. Therefore Moltmann's the eschatological, trinitarian pantheism eventually proved to be the postexistence of Christ. Although Moltmann tried to solve the theodicy in the theology of the cross, he overlooked the personal aspect of salvation by the biblical view.

Consequently, Luther was opposed to adoptionism focusing on the work of Christ without the immanent Trinity. Therefore, Luther's Understanding of the Preexistence of Christ will prevent Christianity from changing as the religion of human achievement. And it is a good example to set direction and provide a basis for Christ's preexistence.

Key Words: the preexistce of Christ, The crucified God, adoptionism, immanent Trinity, panentheism, soteriology

[참고문헌]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trans. Robert Schultz.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70.
- Anderson, Charles C. *The Historical Jesus: A Continuing Que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 Craddock, Fred. *The Pre-existence of Christ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68.
- Dunn, J. D. G. *Christology in the Making: A New Testament Inquiry into the Origins of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89.
- Fuller, Reginald H. "Pre-Existence Christology: Can We Dispense With It?" *Word & World* 2. Alexandria: Virginia Theological Seminary, (1982): 29-33.
- Gathercole, Simon J. *The Preexistent Son: Recovering the Christologies of Matthew, Mark, and Luke*. Grand Rapids: Eerdmans, 2006.
- Grenz, Stanley J. & Olson, Roger E. *20th 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Haanes, Vidar L. "Christological Themes in Luther's Theology," *Studia Theologica* 61(2007), 21-46.
- Ian D. Kingston Siggins. *Martin Luther's Doctrine of Chri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ed. Jaroslav Pelikan and Helmut Lehmann. 55 vols.: Philadelphia and St. Louis: Fortress Press and Concordia Pub. House, 1955ff.
- Lohse, Bernhard. *Martin Luther's Theology: Its Historical and*

- Systematic Development.* trans. Roy A. Harrisvil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Mackintosh, H. R.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 Edinburgh: T. & T. Clark, 1913.
- McGrath, Alister E. *Theology of the Cross :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New York : Basil Blackwell, 1985.
- Moltmann, Jürgen. *The Crucified God.* trans. R. A. Wilson and John Bowden.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 _____. *Der gekreuzigte Gott: 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Kaiser, 1972.
- _____. *Following Jesus Christ in the World Today: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and Christian Discipleship.* Elkhart, Indiana: Institute of Mennonite Studies, 1983.
- _____.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 Margaret Kohl ,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5.
- _____. *Theologie der Hoffnung: Untersuchungen zur Begründung und zu den Konsequenzen einer christlichen Eschatologie.* München: Kaiser, 1964.
- McCready, Douglas. *He Came Down From Heaven: The Preexistence of Christ and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5.
- Moltmann, Jürgen. *Trinität und Reich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김균진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Der gekreuzigte Gott*,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김균진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8.
- _____. *Politische Theologie*. 『정치신학』.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Kerr, Hugh T. (ed.). 『루터신학 개요』. 김영한 편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Runia, Klaas. *The Present-day Christological debate*, 『현대기독교론 연구』. 김호남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Selderhuis, Herman J. (ed.), 『칼빈 핸드북』.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김영선.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 판넨베르크의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의 관계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문병호. 『기독교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이신열.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창조와 진화를 통해 살펴본 십리이해”. 『고신신학』15호 (2013), 257-93.

이용규 · 이신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연구: 판넨베르크를 중심으로”. 『조직신학 연구』제18호(2013): 164-92.

이용규. “칼빈의 그리스도 선재성 이해에 대한 고찰”. 『갱신과 부흥』17호 (2016), 35-51.

차재승.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